



사랑의 신성(神性)의 경제

Love's divine economy

The Christian Science Journal online, 29 August 2011

릭 디어본 (Rick Dearborn)

요즘 뉴스 보면 경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소리를 늘 듣게 된다. 개인적 또는 국가적 부채, 저당물 반환권 상실, 주식 시장 요동, 실직문제 등에 대한 뉴스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신자로서, 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나의 기도는 경제에 대한 고양되고 영적인 이해로 나를 이끌어 준다.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경제란 물질적 자원과 부(富)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의된다. 그것은 모두, 대개 두려움과 탐욕에 의해 조종되는 것처럼 보이는 시장 가치의 지원, 또는 저항을 받는, 상품들과 서비스들을 거래에 관한 것일 뿐이다. 더 고차원적 관점으로부터 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체의 일체시**라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베풀어주시는 모든 것은 영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짜 받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영적 아이디어들의 흐름이다. 그것이 신성의 경제의 핵심이다.

신성의 경제 안에서는, 두려움도 탐욕도 없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의 파이 조각을 가지려고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마치 제한이 없고 계속적인, 사용 가능한 태양의 빛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선(善), 즉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원이 있다.

*하나님은 특성상 완전히 영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은 또한 영적일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메리 베이커 에디는 다음과 같은 답을 주고 있다, “신성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항상 채워 주셨고, 또 항상 채워주실 것이다.” (과학과 건강 494 쪽) 나에게 있어서, 그녀의 설명문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만일 신성의 사랑 즉 하나님이 항상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인간적 필요는 오로지 하나, 즉 사랑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은 필요를 항상 채워주실 수 없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항상 베풀어 주신다면, 그렇다면 신성의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사랑으로 구성된다, 즉 오직 사랑으로만 구성된다.

신성의 사랑의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적 경험의 가장 작은 세부사항에서도 실용적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가치가 있다. 이것은 단지 희망 사항, 긍정적 사고가 아니라, 영적이고 과학적으로 실증 가능한 사실이다.

어떻게 하여 신성의 **사랑**이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인가? 각 개인이 무한하고 제약이 없는 신성의 **사랑**과 자신만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을 수 있거나 줄 수 있는 **사랑**의 양에는 어떤 한계도 없다.

신성의 경제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사랑, 즉 오직 사랑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인간적 경험은 우리의 개별적 사고(思考) 안에서 우리가 공명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직접적인 결과이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모든 완전함과 무한함 안에서 그것의 영적 현실성과 공명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 생각 안에 가장 중요하게 유지하는 정도까지 그것이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며 모습으로서, 우리는 물질적 자원의 공급과 수요에 좌우되는 경제의 인간적 상태에 의존하기를 절대로 강요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고 있다. 그리고 신성의 **사랑**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우리가 왜 다른 곳을 찾아봐야 하겠는가? 우리의 필요는 **사랑** 만에 의해 채워질 뿐,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채워지지 않는다.

우리의 필요들이 사랑과 애정에 대한 인간적 의미보다 훨씬 더한 것에 의해 채워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은 우리가 참된 신성의 **사랑**, 즉 **하나님**께 대한 영적 의미를 깊게 해감에 따라 채워진다. 그러나 인간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밀접하게 관계된 것으로 보이게 된다. 예컨대, 우리의 금전적 수입의 근원이 멈추게 되면, 지불하는 데 있어 우리를 믿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 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를 다하기가 어렵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와 더불어 고통을 받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우리가 받거나 줄 수 있는 사랑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에디 여사는 모든 인간의 필요가 **사랑**에 의해 채워진다고 가르쳤다. 우리가 신성의 **사랑**의 경제를 이해하게 될 때, 이 깨달음이 우리 삶의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필요도 채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 자신만의 필요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진다, 완전하게 그리고 오직 신성의 **사랑**에 의해서만 채워진다.

이제,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즉 “이것 모두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나는 실직 상태에 있다. 어떤 식으로 이런 개념이 나의 당장의 필요를 도울 수 있겠는가? 어떻게 **사랑**의 경제에 대한 깨달음을 지금 당장의 나의 경험 안에 실용적인 무엇으로 변환시킬 수 있는가?”

먼저, 채용 가망이 있는 구직자의 관점에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여다 보자. 직장을 찾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능을 가능한 최대로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자신들의 일에 대해 보상을 받고자 한다. 그들은 성장과 도전이 있는, 즉 그들을 필요로 하고 아껴주는 자리를 제공해주는 직장을 찾는다

*경제란 사실상 온통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즉 상품의 영감적인 공유와 봉사에 대한 보상이다.*

한편, 고용주들은 구인하는 자리들에 적합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개인들을 찾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직에 가치와 질을 가져오는 사람들을, 즉 정직하고 책임감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을 찾는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양 편 모두에서 사랑을 찾는 것이라고 묘사할 수 있지 않을까? 피고용인은 직장에서 사랑 받는 것을 느끼기를 원하고, 또 고용주는 주어질 일을 사랑할 사람을 찾는다. 만일 고용주가 피고용인에 의해 표현된 사랑의 서비스에 대해 감사한다면, 피고용인은 합당한 봉급으로, 즉 고용주의 감사하는 마음이 밖으로 드러난 표현으로 보상 받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경제란 사실상 온통 사랑에 대한 것, 즉 상품의 영감적인 공유와 봉사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 피고용인, 고용주 양 자 모두가 자신들의 활동들을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과정은 피차에게 매력적인 것이 될 것이다, 즉 접근하는 두 개의 자석들과 매우 닮은 꼴이 된다. 직장을 찾는 사람을 위한 주된 기회는 그 사람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며, 그것은 잠재적인 고용주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특성으로서 외면 상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이 항상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채워주기 때문에, 무한하고 영존하는 사랑의
대차대조표는 항상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이해로부터 벗어나고, 경제를 자신들이 움켜질 수 있는 돈은 무엇이 되었든 움켜쥐기 위한 각자의 투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두려움과 탐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자신들에 대한 우리의 견해는 흐려지고 어두워진다. 만일 거울이 흐려져 있다면 그것이 무엇을 반영할 수 있겠는가? 반영할 수 없다. 그것은 깨끗하게 닦여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두려움과 탐욕을 “닦아 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끊임 없이 오고 있는 사랑에 찬 아이디어의 흐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경이, “열심을 다하여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 (잠언 4장 23절)이라고 말씀하는 바와 같다.

많은 경제학 교과서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성공으로 가는 진짜 열쇠는, 두려움과 탐욕, -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되었든 갖고자 투쟁하며 홀로 있다는 두려움,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해도 충분히 가질 수 없다는 탐욕- 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감각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과학과 건강*은 신성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인간적으로 원하는 것을 채워준다고 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 필요를 채워준다고 한다,

신성의 경제 안에서는 사랑이 통용되는 통화이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나 갖고자 하고 주고자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유일한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유일하고 제한이 없는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신성의 **사랑**의 아낌을 받는 반영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우리의 동료 인간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함에 따라, 제한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양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게 된다.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자산이고 우리의 유일한 책무이다. 그리고, **사랑**이 항상 우리의 정확한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대차대조표는 항상 완전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모두 사랑 사업 - 유일하게 참된 경제, 즉 **사랑**의 신성의 경제- 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릭 디어본은 소규모 사업의 소유주이며 자신의 부인과 함께 생루이 지역에서 살고 있다.